

## 이재명대통령 "더 큰 위기 번지지 않게 모든 수단 대응...연대·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 우원식 국회의장, 우 의장 부인 신경애 여사. 2026.4.5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부활절을 맞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과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도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

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뤄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썼다. 이날 부활절 연합예배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국내 개신교 73개 교단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연대의

김혜경 여사 동행...중동·한반도 평화 메시지 낼 듯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 "어려운 분들일수록 두텁고 세심히 지원"

"평화·사랑 의미 되새겨야...한국 교회, 국민 마음 하나로 모아달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1.3조원, 부담 예상' 주장에 반박

"추경서 지방정부에 주는 돈 9.7조원...초보 산수"

약속, 이것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분들일수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 앞길을 환하게 비춰왔다"며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하

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갈 때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천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천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기자

## '방파제' 쌓았다지만 '인플레이 스톰'...해외B "물가 3% 웃돌 것"

주요 8개 IB, 물가상승률 전망치 2.0→2.4% '경중'...한달새 0.4%p ↑

정부 총력대응하지만...고유가·고환율 '더블쇼크'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p) 끌어올린 것을 시작으로 눈높이를 줄줄이 높이는 흐름이다. 일단 3월 물가지표까지는 일부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권에 머물렀지만, 이제부터 중동발 고유가 충격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공업제품 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월 이후로 소비자물가 오름폭의 확대를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추가인하, 품목별 특별관리(43개)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가파른 상승폭을 완화하고 불공정 짊어짐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스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 구조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서는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이종의 물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층 내수를 위축시키고 거시경제 정책조합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0%에서 3월 말 2.4%로 0.4%p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2%p 높은 수준으로, 불과 한 달 사이 평균 전망치가 이 정도 뛴 것은 드문 일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

(2.1%)와 UBS(2.0%)를 제외한 나머지 IB 6곳이 모두 전망치를 2.0% 중반대로 높였다. 바클리는 1.9%에서 2.5%로, 씨티는 1.9%에서 2.6%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4%로, JP모건은 1.7%에서 2.6%로, HSBC는 2.1%에서 2.3%로, 노무라는 2.1%에서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IB 중에 1%대 전망치를 고수한 곳은 없었다. 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데이터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물가 안정화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6%에 이를 것"이라며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2.6%를 제시한 씨티도 같은 날 보고서에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잠정적으로 2.8%로 가정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에도 소매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티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4~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2.8~3.3%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른 아시아 주요국의 물가 전망치도 연달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월 말 평균 1.6%에서 3월 말 평균 1.9%로 0.3%p 높아졌다. 홍콩(1.6→1.8%), 인도(3.9→4.3%), 인도네시아(2.8→3.2%), 말레이시아(1.7→1.9%), 필리핀(2.6→3.6%), 싱가포르

(1.6→2.0%), 태국(0.3→0.7%) 등으로 일제히 전망치가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으로 중동발 에너지 쇼크를 피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총력 대응이 충격파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효과를 내겠지만, 당국이 쌓은 방파제만으로 맞서기에는 '고유가 파고'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3월 물가지표에서는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책효과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는 평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출고가가 인하된 밀가루 물가지수는 132.33으로 작년 동월보다 2.3% 떨어졌다. 전월보다는 1.5% 내렸다. 봄철 생산증가 등과 맞물려 상추·시금치·갯잎·오이·호박·토마토도 작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하락했다. 석유류가 9.9% 뛰며 전체 물가를 0.39%p 끌어올렸고 경유(17.0%)·휘발유(8.0%)·등유(10.5%) 모두 크게 올랐지만, 국제유가 흐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적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모두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품목들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의 물가 파급이 3~6개월에 걸쳐 나타나는 시차를 감안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가 3월에 상승했다라도, 비축분 사용 등으로 수입원유 가격은 4월에야 오르게 된다"며 "곧바로 반응하는 석유류만 보더라도 그런데,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본격적인 영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

CERAMIC FESTIVAL 40TH

2026. 4. 24.(금) - 5. 05.(화) 이천도자기축제(에스페리)·시가막길 도예촌

휴과 불의 잔치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